### ● 감사헌금

고삼녀 권치임 김명순 김명철(목) 김삼순 김성민(부) 김수용(이선정) 김영호(김순애) 김윤숙 김의경(박효선) 김정화 김창희 노만수 (박순분) 문무홍(권현자) 박금란 박소명순 박원형(송영주A) 송민식 (송혜정) 신이건(김해옥) 신정숙 신현미 심미숙 양나경 유명호 윤귀순 이선옥 이성만(정영희) 이수남 이승학(김복실) 이영숙 이한철 임승호(오영숙) 전미리아 정미숙 정성운(이은경) 정순근 (송은주) 정승호(최영숙B) 정외자 정주아 정주혜 조순애 주선덕 차창철(김두순) 최규하(최경희) 최재인(정채윤) 추한철(추선우) 한순 홍기철(고난홍)

## ● 일천번제(11월 20일 기준)

강효중(이만순)(2460) 권모세(726) 권제홍(김은주)(914) 김상정 (김상희)(489) 김신철(정외자)(2737) 김영대(차연희)(3581) 김영일 (김연순) 김옥희(1084) 노만수(박순분)(3524) 도상원(1571) 문무홍 (권현자)(745) 박성찬(장희영)(719) 박진성(정영혜)(873) 신미자 (3362) 신이건(김해옥)(2104) 안영균(전숙자)(540) 양나경(988) 양양춘(18) 염동용(윤영심) 이미숙 이보수(노정숙) 이성만(정영희) (208) 이순아(3014) 이영숙 이정곤(신현미)(2158) 임기남(3225) 임승호(오영숙) 장영심(179) 정성운(이은경)(715) 정순근(송은주) 정연란(7) 주선덕 주희정 최규하(4412) 최승렬(정미숙) 최재인 (정채윤) 한옥희(539) 무명1

- ●생일헌금 김은임 이영준 최순심
- 추수감사헌금 김수용(이선정) 장영심
- ●전도특별헌금

강문순 강문옥 강중환 김영대(차연희) 김영진 박금란 박원형(송영주A) 양영란(강규복) 이경숙B 이춘애 임승호(오영숙) 전벽산(윤종순) 정순근(송은주) 정주혜 최경희 최순심

- **가정예배감사헌금** 정낙연
- 건축헌금 노만수(박순분) 이영숙 정순근(송은주)
- ●선교헌금

권태홍(황정숙) 김영대(차연희) 김영진 김종안(한현) 박귀남 박금란 신이건(김해옥) 이미숙 이수남 이필순 임기남 임승호(오영숙) 장정희 전벽산(윤종순) 정순근(송은주) 정주혜 정현점 조의명 (이춘애) 조종임 최순심 표신옥 허영희 제2여전도회 무명1

- **구제헌금** 이영숙 정동현 정순근(송은주) 무명1
- ●비전헌금

권태홍(황정숙) 김영대(차연희) 김영진 박금란 이미숙 이수남 이옥문 이춘선 임기남 임승호(오영숙) 장정희 전벽산(윤종순) 정순근(송은주) 정주혜 정현점 조의명(이춘애) 최순심 표신옥

## 교회소식

- ▶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예전색깔: 흰색)
- ▶ 정기당회: 다음주(30일) 2부예배 후, 당회실
- ▶ **안수집사회 월례회 및 총회:** 2부예배 후, 본당
- ▶옥상 주차장 방수 및 미끄럼방지 작업
- \* 11/24(월) ~ 11/29(토) 옥상 주차금지 합니다
- \* 새벽기도 오시는 차량은 풀리페아파트 주차장 이용바랍니다
- ▶ 입원: 2-6구역 이수남 은퇴권사 온병원
- ▶ 장례: 2-3구역 故장태분 은퇴권사(김종해 은퇴장로 부인)(18일 화)
- ▶ 점심대접: 2-3구역 김종해 은퇴장로 가정(장례후 감사)
- ▶ 떡제공: 임직자 일동
- ▶ 현물: 4-4구역 백철수 은퇴집사(이말임 은퇴집사) 공기청정기 1대
- ▶ 요람제작: 2026년 요람내용 변경 및 신청(사진, 주소, 전화번호) 교구목사, 사무실에 접수바람

## 예배위원 및 식당담당

		이번주일(11/23)	다음주일(11/30)
안내위원		이선옥 최영숙	이선옥 최영숙
헌금 위원	1부	박진성 박성찬	김종안 유대일
	2부	이종재 권모세	최승렬 김길수
식당담당		김혜신 조재선 곽유자 오영숙 한영숙 한현 이영선 소병국 유대일 정성운 김길수	김봉숙 홍의신 박순분 장희영 신예섬 김유자 최공순 윤영숙 심미숙 장정희 박경희 조광조 김종안 신수용

## 2025년 선교사 지원 및 후원교회

선교지명	성 명	선교지명	성 명
인도네시아	이춘모	신덕교회	손필숙
태국	김지영	김해세계로교회	김명철
서종교회	윤세준	예나우(거창)	김성훈
대구사랑교회	남성우	김해	부산장신대
베트남	노광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제74권 47호 2025년 11월 23일

< 은성교회 비전 >

< 2025년 총회 표어 >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은성교회!! (요 3:16)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 주 일 예 배

1부 : 오전 9:00 2부 : 오전 11:00

\* 개 회 찬 송 70장(1,4절)

\* 예배의부름 송 영

\* 참회와선언 인도자

\* 교 독 문 24번(시편46편)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38장

감사와도고 조광조 장로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2장 1절~12절(신약144쪽)

찬 양 1부: 할렐루야 찬양대 "왕께 찬양하세"

2부: 샬롬 찬양대 "선한 목자 되신 주"

말 씀 선 포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봉 헌 270장

교회생활안내 인도자

\* 결단의찬송 "살아계신 주"(1,3절)

\* 축 도 담임목사

※ 다음주일 기도 남상영 장로

49262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22번길 3-4 TEL 256-3918, 241-3927 FAX 241-7232 http://eschurch.or.kr 담임목사 홍기철

## 오 후 찬 양 예 배

오후 2:30

찬 양 코람데오

기 도 유대일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디모데후서 2장 15절(신약345쪽)

특 송 임직자 일동

말 씀 선 포 하나님 앞에 / 김성민 목사

찬 송 449장

교 회 소 식 담임목사

축 도 담임목사

※ 다음주일 기도 박인철 안수집사

## 수 요 예 배

I 부: 예배(오전10:00)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370장

기 도 김상희 권사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10장 25절~37절(신약110쪽)

말씀선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찬 송 430장

교회소식 김성민목사

축 도 김성민 목사

Ⅲ부: 경로대학 특별활동

※ 다음수요 기도 조재선 권사

#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30

찬 양 코띾데오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11장 1절~3절(신약364쪽)

말씀선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기 도 회 합심기도 및 개인기도

축 도 담임목사

## 새 벽 기 도 회

월~금 오전 5:30

"새벽에 아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46:5)

### 가 정 예 배

- 1. 사도신경: 다함께
- 2. 찬송: 93장 1.2절
- 3. 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27절
- 4. 말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예사롭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시고"(창 1:27)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 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혼을 소유하고 있으며 땅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위대 한 권리를 부여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 둘째, 절망의 막다른 골목은 복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와 저주가 들어와 인간은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막다른 골목이 복음의 출발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의간수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에 옥문이 열리자,그는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바울과 실라가 급히 큰소리로 그를 불러 안심시키며 "주 예수를

민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고 복음을 전하자, 그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 셋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 주십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명사회에서 돈과 기계의 노예가 되어 인간성을 상실한 채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삶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자살하면 다 끝난다고 사람들을 속이지만,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5. 기도: 설교자
- 6. 헌금 헌금찬송: 93장 3,4절
- 7. 헌금기도
- 8. 주기도문: 다함께

# 향기로운 예물

【온라인 헌금 계좌: 신한은행 100-026-219764 / 예금주: 은성교회】 ● 십일조

권모세 김경숙 김명석(정규자) 김복만(구갑순) 김영대(차연희) 김영진 김옥연 문무홍(권현자) 박견자(김영옥) 박남수(이미숙) 손은미 신문자 양영란 오금숙 윤영심 이상덕 이수남 이은경 이춘선 임기남 임승호(오영숙) 장정희 전벽산(윤종순) 정순근 (송은주) 정승호 정주혜 정현점 조의명(이춘애) 조종임 조춘자 진원옥 최순심 표신옥